

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,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 특별홍보

✎ 정종만 기자 | ㉠ 승인 2024.09.19 11:15 | 15면



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는 지난 13일 추석 명절을 맞아 논산화지시장에서 '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' 특별홍보 펼쳤다. 한국농어촌공사논산지사 제공

[논산]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(지사장 장상규)는 지난 13일 추석 명절을 맞아 논산화지시장에서 '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' 특별홍보 펼쳤다고 19일 밝혔다.

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(만65세~만84세)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게 매도 이양하는 경우, 연 600만 원(1ha기준, 매도시)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다.

충청남도는'충남형 농지이양 은퇴직불제'에 참여한 농업인에게는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연 500만 원(1ha기준, 매도시)의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어 도내 고령농업인들의 노후 보장을 더

욱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.

장상규 지사장은 "앞으로 고객별·계층별 맞춤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공사의 대표 브랜드인 농지은행사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보다 많은 고령농업인들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



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는 지난 13일 추석 명절을 맞아 논산화지시장에서 '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' 특별홍보 펼쳤다. 한국농어촌공사논산지사 제공



정종만 기자 nice700@daejonilbo.com